“미래사회 동량으로 거듭나길”

연등장학재단, 고교생 · 대학생 20명에 장학금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5월 5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4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설립 15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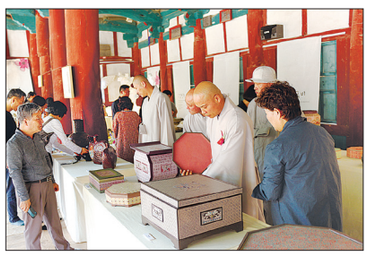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갈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소양을 갈고 닦아 미래사회의 동량이 되어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은 2004년 사재 6억 원과 임야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 이후 장학기금조성에 매진해 2008년 임야, 사재를 더해 현재 8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577명의 학생들에게 4억 5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통한지 아름다움 알린 전시회

고창 선운사 5월 4~12일 작품 120여 점 선봬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찬란했던 한지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한지를 재해석하는 한지전시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5월 4일 선운사 만세루에서 ‘부처님 전에 천년 한지를 담아내다’ 전시회를 개막했다. 5월 12일까지 이어진 한지전시회서는 11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한지 발우, 장유병, 차상, 문갑 등 한지공예품 50여 점과 납골함, 추상성이 돋보이는 한지 현대조형작 50여 점, 한지수의, 한지납골함, 반려동물 수의 등 장례용품 등 총 1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경우 스님은 “한지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천년의 역사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다양한 불교문화 속에서 한지의 쓰임새를 엿볼 수 있다”며 “자연과 호흡하려했던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문화적 우수성과 미술사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들리지 않아도 부처님 사랑해요”

부산 보광사 청각장애인, 봉축 맞아 만발공양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는 만발공양을 펼쳤다.

부산 기장 보광사(주지 도원)는 5월 5일 아름공원 일대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비빔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도원 스님과 청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원 스님은 “처음에는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급히 사찰에서 새로 밥을 짓고 다시 공양을 올렸다”며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광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이어오다 2018년 12월 16일 기장으로 이전, 새롭게 문을 열고 사찰명을 여래사에서 보광사로 변경했다. 보광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주지 도원 스님이 직접 수화로 법문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노후의 ‘희망역’ 되다

영도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바자회 및 만발공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은 5월 7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바자회 및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이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의료 치료비 지원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전문화된 복지관 서비스뿐 아니라 독거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희망역’으로 불리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5월 7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바자회 및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들어서자 복지사들은 어르신들의 옷깃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건강을 기원했다.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마당에서는 바자회가 열려 북적거렸다. 바자회서는 영도구노인복지관 어르신봉사단이 직접 나서 부침개를 만들고,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기쁨을 함박웃음으로 표현했다. 나이가 많아도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출 수 있어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자회는 옷, 잡화 및 먹거리를 판매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의료지원금을 마련했으며, 만발공양은 복지관을 찾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만발공양은 총 500인분의 떡과 음료 그리고 소고기국 등 만찬으로 준비됐다.

관장 선공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 특식을 마련했다”라며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2001년 11월 개소해 2006년부터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도구는 노인

의료지원금 마련 행사 열려
어르신들 공양과 선물 전달
각종 노인복지사업 전개하며
지역 자살률 감소에도 한몫

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사망률이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원도심으로 노인복지가 중요한 지역이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가 뛰어나 영도구 내 은둔형 및 우울증 어르신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이 실시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프로젝트’는 영도구 내 고독사를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되찾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프로젝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선공 스님은 “영도구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두 곳이나 있다. 복지관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사회성이 있는 분들이지만 은둔형 외톨이와 우울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파악하려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노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고위험군에 속한 어르신을 연결, 사회 속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은 현재 6000여 명의 독거어르신을 관리 중이며, 노인 자살률 및 고독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선공 스님은 “은둔형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처음에는 오물을 던지는 등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에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면 나중에는 남을 위해 봉사까지 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이외에도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사업 △정서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노인 복지사업을 이끌고 있다.

부산 5번째 천태도량 ‘해영사’ 낙성

해운대구 구민 전법도량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



부산 해운대 천태 전법도량 해영사가 5월 6일 관음전에서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해영사가 부산 해운대지역에 전법기도도량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낙성식에서 천태종은 “불국토를 만드는 인연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부산 해운대 천태전법도량 해영사(주지 세운)는 5월 6일 관음전에서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해영사는 광명사, 삼광사, 용평사 등에 이어 5번째로 부산서 문을 연 천태종 사찰이다. 부지는 대지면적 211평, 연면적 750평이며, 사찰은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낙성식은 테이프 절단식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상월원각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깊은 신심으로 불사를 서원하고 원력이 하나 되어 모든 난관을 극복해 장엄한 도량을 이룩했다”며 “무량한 공덕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다”고 치사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무수무량의 길상인연이 모인 지혜의 터전이고, 무한무변의 공덕이 쌓인 복락의 불토”라며 “나라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일체중생의 해탈지견을 열어주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해영사는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인연이 될 것”이라며 “해영사가 한 중생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 천태불자들이 기도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해영사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1997년 前삼광사 주지 춘광 스님과 덕수 스님이 종교부지를 매입했으며, 2015년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해영사(海泳寺)라는 사찰명을 받아 11월 19일 기공, 2018년 7월 상량식을 봉행했다. 해영사 내부에는 기도실 및 법당, 종무소와 공양실 등이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 구민을 위한 천태기도 전법도량으로 건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